

"방일야야말로 죽음의 좁은 길"



관리소홀

물쉬인 연료를 주입하는 바람에 전투기가 추락해 젊은 장교가 목숨을 잃고,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세제가 관장약으로 둔갑해 수술을 앞둔 환자 4명이 생명을 잃는 등 사소한 관리소홀로 인한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공군의 유류저장탱크 곳곳에 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의 정신이 그러할진대 일반인들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사소한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재(人災)를 막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건 말씀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작은 악을 대단지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불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을 채우고 만다. (열반경)

■ 쓸쓸한 길에 우물을 파며, 과수를 심어 서늘한 숲을 이루며, 다리놓고 배 만들어 사람 건네며, 보시를 행하고 계를 닦으며 지혜 있어 곧 탐심 버리는 이는 공덕이 밤낮으로 증장되어 언제나 천계에 태어나리라. (승기율)

■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길의 외석(瓦石)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건너야 할 물이나 험한 곳에 다리를 놓으며, 어두운 곳을 위해 등불을 단다. (대집경)

■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경우 그 재앙을 자초하는 것 뿐이어서 부모 형제 종족이 그 죄를 대신해 받아주는 것은 아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복을 스스로 받는 것 뿐이어서 부모 형제가 그 기쁨을 대신해 얻는 것도 아니다. (출요경)

■ 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

(비취누경)
■ 비록 백년을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것만 못하느니라.

(출요경)
■ 한 방울의 물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능히 돌을 뚫을 수가 있다.

(유교경)
■ 마치 사람이 작은 나무 조각을 잡고 저 큰 바다로 들어간다면 사람과 나무는 함께 빠지리라. 게으름을 함께함도 또한 그러하니 마땅히 게으르고 비열한 방일을 떠나야 한다.

(집이합경)
■ 게으름은 때와 같은 것. 때에 게으름에서 생기느니라. 애써 닦음으로써 또한 밝은 지혜로써 자에게 박힌 화살을 뽑아라. 국토의 기근, 때 아닌 풍우, 뒤늦은 풍우, 일월의 박식(薄蝕), 성숙(星宿)의 변괴이다.

(심지관경)
■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가장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의 복 배배 등을 가져다 보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리러 예배하면 위난을 당할때에 신들의 보호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흉수나 화재의 재앙이 근접치 못하고, 또 적으로부터 역권을 당하지 않으리라. 또한 총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정보살본원경)

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리라. (중일아합경)

■ 선정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니, 마치 물을 아끼는 집에서 독을 잘 쌓아 놓은 것과 같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해의 물을 간직하려는 까닭에 선정을 잘 닦아 그 누실을 막는 것이다. (유교경)

■ 만일 한량없는 착한 법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방일하지 않음을 근본으로 하고, 방일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하며, 방일하지 않음을 머리로 하니 방일하지 않음은 모든 착한 법에서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중이합유경)

■ 부처님께 항상 공양드리고 바른 법 구하기를 즐거워하며 방일하지 않고 따라 배우면,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나 더해가리라. 만일 이처럼 실행 잘하고 잘 단속해 방일하지 않으면 그로써 악마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리라. (지정보살본원경)

열린마당

한국정토학회 제2회 세미나 21세기 불교신행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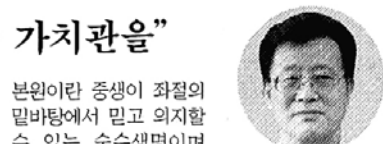
새 천년을 앞두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진단하는 '21세기 불교신행의 과제' 세미나가 한국정토학회(회장 정태혁)의 주최로 10월 28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세기말적 혼란의 시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정토신행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토사상을 통한 불자의 가치관 확립과 실천적 의식전환 등이 신행의 과제로 대두됐으며, 불교음악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신행활동 전개, 승가의 의무와 실천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대비원력 믿는 확고한 가치관을"

강동균(동아대 교수)

불타에 의해서 자각된 자비와 지혜가 바탕이 된 여래의 대비심(大悲心)이 아미타불의 본원이라는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고 표현된 것이 본원사상이다. 정토사상은 이같은 여래의 본원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은 단지 여래의 본원에 의지하지만 하면 구제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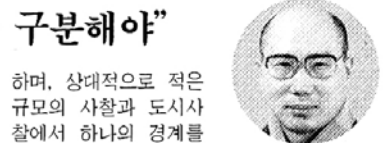
본원이란 중생이 좌절의 밑바탕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순수생명이며 절대가치이다. 진리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중생이, 그를 섭취 불사(攝取不捨)하겠다는 여래의 본원(=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에, 거기에 본원의 의의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며, 정토왕생의 근거도

명시되어지는 것이다. 여래의 대비원력을 믿고 의지하여 환희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가치기준이 퇴락해 버린 현대의 우리들에게 믿고 신행할 수 있는 확고한 가치관이 된다. 특히 현대에 살면서 여러가지 사회적 재앙을 받는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본원을 따라 실천하는 정토신행은 대승불교의 정신을 새롭게 되살리는 적극적인 신행이 아닐 수 없다. 현대사회속에서 모두의 수행방편으로써의 실천하는 정토신행이야말로 대승불교사상의 정수라 할 것이다.

"스님과 재가불자 역할 구분해야"

대원스님(중앙승가대 교수)

21세기는 재가불자뿐 아니라 승가의 신행방향 또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부처님 당시의 전통을 지키면서 현실에 맞는 수행을 실천해야만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사적인 산중사찰과 선원가 강원, 율원에서는 여법한 인거를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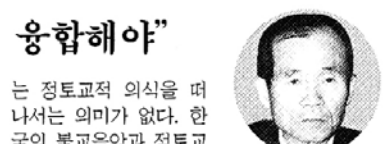
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사찰과 도시사찰에서 하나의 경계를 정해 상황에 맞는 인거를 해야한다. 또 현재 대부분 스님이 맡고 있는 사찰의 업무를 스님이 해야 할 일과 재가자가 해도 되는 일을 구분해 승려자신이 출가 본연 자세를 잊지않고 수행할 시간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대에 맞는 신행생활로서의 영불의 활성화를 꾀고 있다. 영불이야말로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 자기를 건전하게 지키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성불의 길을 향해 실천수행할 수 있는 신행법이며 21세기 현실에 맞는 승가의 수행법이다. 한국불교 승가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의식을 과감히 전환해 아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위에 열거한 방법들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불교음악 전통과 현재 융합해야"

홍윤식(동국대 교수)

불교신앙에 있어 의식은 불가결의 요소이며, 특히 정토신앙은 영불의식절차를 통해 한국불교의식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불교음악의 구체적 현실과 정음은 정토교의식을 통해 오늘에까지 전래할 수 있었으며, 불교음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범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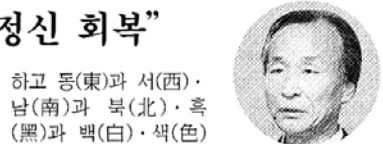
는 정토교적 의식을 떠나는 의미가 없다. 한국의 불교음악과 정토교의식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같은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한 불교의례의 능동화는 불교의 대중적 이해와 신앙심 고조에 크게 기여하는 등 기능적 측면에서 신행

이끌어 왔으며, 이는 곧 개인적 종교체험으로 이어졌다. 특히 조선 후기 불교계는 의식불교를 지향함으로써 정토교적 영불신앙의 증진을 꾀하기도 했다. 이같은 영불을 포함한 불교음악을 21세기 신행에 있어서도 새롭게 활용해야 한다. 불교음악을 통한 정토신앙의 확산은, 불교음악의 전통을 되살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토신행으로 무소유정신 회복"

선진규(조계종 전국신도회장)

새 천년은 지난 세대에 있었던 수많은 절망과 고통을 떨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토신행은 이제부터 그 진가를 발휘할 때다. 영불정토신행이야말로 새 천년 인류에게 대립적 소유욕을 무소유로 전환시켜 정신적으로 풍요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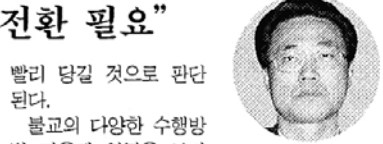
하고 동(東)과 서(西)·남(南)과 북(北)·흑(黑)과 백(白)·색(色)과 공(空)이 돌이 아님을 밝히는 불이문(不二門)에 들게 하여 정토로 귀일(歸一)케 한다. 또 정토신행은 나는 너와 더불어 존재하고, 너와 나는 한 몸품이임을 가르치고 있는 동체대비 대도를 밝혀주는

무량수 무량광(無量壽 無量光)한 자비원력으로 자연파괴로 허물어지고 있는 이 지구와 이기적 경쟁병에 걸려 함께 몰락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제할 할로임을 깨닫게 해준다. 인간이 갖고 있는 무한대의 상상력과 끝없는 창의력과 우주를 감싸고도 남음이 있는 광대무변한 포용력과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시간에 대한 위대한 사고력, 그 무한의 능력과 우주적 가능성을 인식케하고, 그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토록 할 수 있는 것이 정토신행의 길이다.

"재가자의 실천적 의식전환 필요"

정철호(동아대 강사)

속세를 떠난 부파불교를 재가신자들이 개혁하여 대승의 기틀을 잡았듯이 21세기의 한국 불교도 건강한 재가신자들의 올바른 신행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단도 나름대로의 개혁을 하고 있지만, 재가신자의 의식전환과 실천모습은 교단 개혁의 시기를 더욱



빨리 당길 것으로 판단된다. 불교의 다양한 수행방법 가운데 영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재비의 본원을 믿고 따르는 앙신(仰信)의 길로 인도하는 신행방법이다. 영불을 하는 것은 내 자신만의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가 연기(緣起)를 깨달

아 인간 삶의 의미의 밝혔듯이 그러한 각성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것이다. 영불이 나 자신의 기복의 차원을 넘어 상의상관(相依相關)의 넓은 이해의 벽을 넘어설 때 신행의 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재가신자들은 이같은 철저한 수행을 통해 진실한 자기 모습을 찾아, 유한한 개인은 무한의 법체(法體)에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도와 학인들이 구종(救宗)의 마음으로 배를 꾸는 각고의 참회가 있어야만 새시대 새 불교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법주사 주지 해광스님).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정진했던 조사(祖師) 정신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오늘날의 진정한 선사는 학인들이다. 비구 스님들이 학인들의 초발심을 배워야 할 때다"(법주사 주지 해광스님). 전국전통강원연합이 10월 26~27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거행한 제10회 전국승가학인대회 일제식에서 법주사 주지 해광스님과

법주사 주지 해광스님은 오늘날 진정 필요한 승가의 정신은 '학인 시절의 초발심'을 잃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학인대회에서 종단의 화합을 발원하며 참회한 학인들의 간절한 마음은 한국불교의 법등이 잦은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을 발휘

대회를 지켜보며 눈뜬 학인들의 진지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이러한 초발심과 수행에 대한 간절한 사원이 꺾이지 않고 오롯이 자라 불법중흥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10월26일 이후 선본사 갖바위를 둘러싼 총무원과 정화회의측의 충돌을 지켜본 신도들은 "돈 때문에 저렇게 싸운다"며 "불전에 보시금을 넣



김재경 (취재1부 기자)

학인들의 초발심

해 온 원천이 되어왔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해인사의 연극 '스나이퍼'와 통도사의 '불보살의 대중공사' 등은 지속적인 종단분류 등 빼어난 주제 의식을 통해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풍자하며 승가의 자기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 말자"는 말까지 할 정도로 승단에 대한 불신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보고 들은 젊은 학인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 초발심이 헤이해 지거나 행여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조계종의 사부대중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장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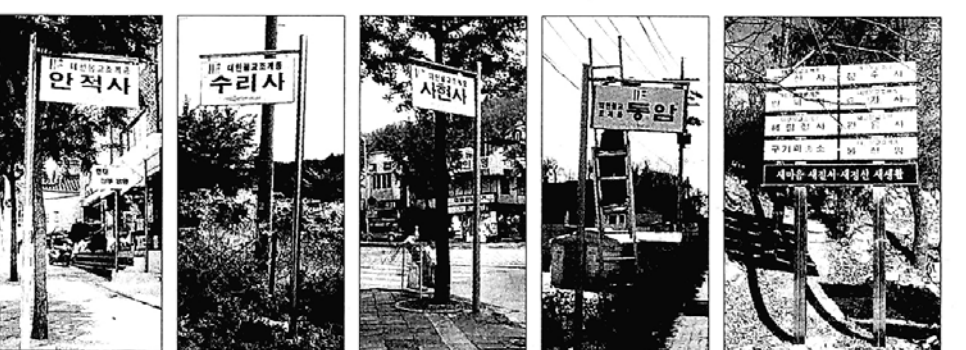
- 스탠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질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사찰연혁판

- 스탠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 전주용 간판 ■ 게시판 ■ 현수막
- 목간판 ■ 난간대 공사
- 첨스공사(울타리공사)
-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사찰이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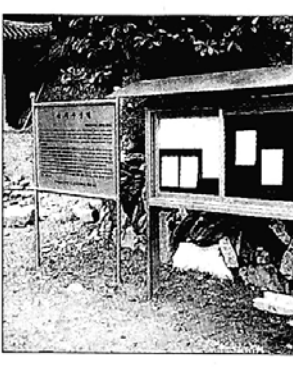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전주용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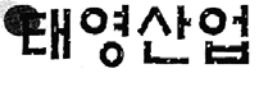
사찰 연혁 게시판



화재안전 포맥스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분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x 10cm

참배후 홑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